

법산 스님 퇴임 "영원한 동국인"

동국대 제40대 이사장 퇴임법회

동국대 제40대 이사장 법산 스님이 임기를 마무리하고 퇴임했다.

학교법인 동국대는 2월 17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제40대 이사장 법산 스님 이임 고불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이사장 법산 스님과 윤성이 동국대 총장, 이영경 경주캠퍼스 총장을 비롯한 교무위원, 산하기관 및 학교 관계자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법산 스님은 이임사를 통해 초심과 동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강조했다. 법산 스님은 "항상 머무름 없이 생각 생각이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금강반야를 성취하는 찰나를 향해 부단히 정진할 뿐"이라면서 "해 뜨는 동국, 꽃 피는 동국, 아름다운 동국, 동국은 영원한 반야바라밀"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비의 복덕을 널리 펼치는 힘찬 정진으로 불국토 실현에 대승보살의 원력과 함께 하기를 서원한다"며 "우리는 영원히 동국인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산 스님은 이임 고불문을 통해 불교 중흥과 건학정신의 현창, 학교 발전을 부처님께 기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전북불교대학 졸업생 61명 배출

문수상에 백윤순 · 신민재 · 이영산

전북불교대학(학장 이창구)은 2월 16일 4층 큰법당에서 '제32회 불교학과 및 제27회 법사과 졸업식'을 봉행했다. 이날 강미진 씨를 비롯한 불교학과 32기 44명, 김현정 씨를 비롯한 법사과 27기 17명이 졸업했다. 또한 전법사고시를 통과한 김형천 씨 등 6명은 전법사 자격증을 받았다. 성적우수자 시상에서 최우수상인 문수상은 불교학과 백윤순 · 신민재, 법사과 이영산 씨가 받았다.

이창구 학장은 식사를 통해 "업(業)장을 졸(卒)한다는 졸업(卒業)은 마음의 고향인 불성으로 돌아온다는 뜻"이라며 "졸업의 의미를 되새겨 참회발원의 삶으로 회향해 부처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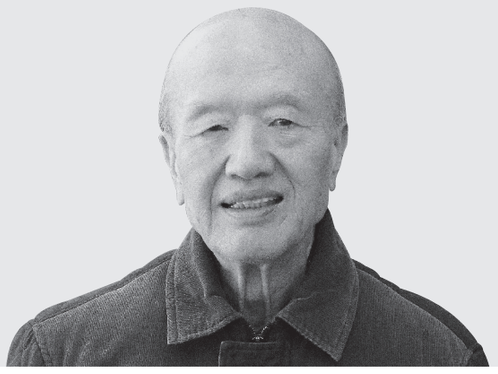
선운사 동효 스님은 격려사에서 "모든 것의 중심이 '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불교"라며 "나의 마음자리, 즉 심지(心地)를 알아 깨달음을 이루자"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禪 · 敎 50년 정진 대중에게 회향을"

Interview

선법회 여는 고준환 경기대 명예교수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014년부터 암투병 생활
간절함으로 견성 체험해
3월 5일부터 매주木 강연

인사동 음식점에서 만난 한 노(老) 교수의 얼굴은 창백했다. 신장암과 폐암 투병생활을 거친 터라 머리카락도 듬성듬성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형형했다. 고준환 경기대 명예교수가 3월 5일 마포 다보빌딩 2층 명상실에서 목요선법회를 시작한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1시간가량 깨달음의 길을 돕는 선교(禪敎) 강연이다.

고 교수는 2014년 신장암과 전이된 폐암으로 인해 최근 생사의 고비를 넘겼다. 2011년 본각선교원을 개원해 불교 대중화를 발원한 것도 잠시, 지방 휴양처를 찾아 요양을 겸한 수행생활에 매진했다. 지난해 건강이 조금 좋아져 다시 집으로 돌아온 고 교수는 40여 년 전 학창시절 익히 보았던 책들을 다시 펼쳤다. 반야심경, 금강경, 화엄경 등 경전과 함께 마조어록과 선어록을 보는 순간 몸과 마음이 하나로 꿰뚫림을 느꼈다.

"해오(解悟)를 넘어 기쁨이 샘솟고 행복으로 가득 차는 경지를 체험했습니다. 모든 불교의 사상과 실천행이 하나로 일통되고 기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런 과정과 내용을 선법회를 열어 전하고자 합니다."

선법회는 고 교수가 수십 년 전 발원한 선원 건립의 일환이기도 하다. 그는 교수불자연합회 초대회장을 지낼 당시 교불련 선원을 건립하기로 서원했다. 고 교수는 "현 회장과 교불련 선원 건립을 재추진키로 했으며, 준비단계로 장소를 빌려 선법회를 열어 교수불자들의 수행을 독려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 교수가 진행하는 강연은 선과 교 양쪽으로 진행된다. 교학으로는 반야심경과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에 유마경과 승만경 등의 요지를 전하고, 선어록은 달마어록, 육조단경, 마조어록, 백장어록, 황벽어록, 임제어록, 벽암록을 통해 선의 중요한 내용과 고 교수가 직접 선원을 찾아다니며 법거량한 체험담을 전한다.

고 교수는 "경전과 선어록의 선교일치를 주 방편으로 선은 기본적으로 여래선 수식선, 수식관법을 하게 하고, 문답을 통해 조사선에서 전하는 직지인심 견성성불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이어 "깨달음은 각자 하는 것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1시간 강연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질의응답으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고 교수는 끝으로 간절함을 강조했다. 생사의 고비를 넘으며 느낀 그 간절함만큼 깨달음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50년간 불교를 공부해도 늦게 깨달음이 온 것은 제가 게으른 것도 있겠지만 '목숨 걸고 정진하겠다'는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느낀 문제점이 다른 수행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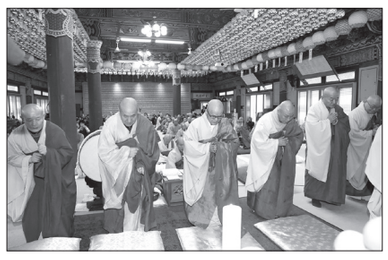
고 교수는 현재 건강이 썩 좋지만은 않다. 절제술을 받은 지 5년이 넘었지만 병원서 CT를 찍으며 예후를 관리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번 강연은 불교계 노장이 평생을 걸고 정진한 결과를 회향하는 자리다. 010-4212-7931

운경당 기홍선사 20주기 기신재

2월 16일 봉선사 청풍루서
추모집 〈운경 스님,~〉 발간
문도회와 봉정법회도 봉행

봉선사 운경문도회(이하 문도회)는 2월 16일 봉선사 청풍루에서 운경당 기홍선사 20주기 기신재 및 추모집 봉정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 회주 밀운 스님과 의정 스님을 비롯한 문도회 스님, 봉선사 대중스님, 1960년대부터 운경 스님과 함께 군포교에 힘썼던 화계사 회주 성광 스님 등 초기 군법사 스님들과 운경 스님이 30여 년간 의정부에서 지도한 삼보불교학생회, 삼보청년회 출신 불자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해 운경 스님의 입적 20주기를 추모했다.

운경 스님(1904~2000)은 한국불교의 근현대사에서 포교불사에 큰 업적을 남긴 선지식이다. 제방에서 20여 안거를 성만하며 만공 스님을 금강산 유점사 선원의 조실로 모시는 등 우리불교에서 금강산 시대를 마지막으로 경험한 세대다. 포교의 암흑기였던 1960년대에 운경 스님이 시작한 청소년포교, 군포교, 도심포교, 재소자 교화 등 경기도 의정부 지역을 거점으로 했던 포교불사는 한국불교 포교사의 전무후무한 역사로 남았다.



당시 스님이 창립한 삼보불교학생회는 한국청년포교의 새로운 길을 열었으며, 현재까지 그 면면이 한국불교 포교불사에 이어지고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에 앞장섰으며 6.25 한국전쟁으로 전소된 봉선사 중건 불사에 일생을 헌신했다. 봉선사 교화원장, 조계종 원로의원, 광동학원 이사, 봉선사 주지와 조실을 지내며 경계 없는 불사를 남겼다. 2000년 2월 27일 오후 8시 20분 봉선사 다경실에서 문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원적에 들었다.

문도회는 운경 스님의 입적 20주기를 맞아 스승의 업적과 생애를 글과 사진으로 정리한 추모집 〈운경 스님, 스님이 계셔서 행복했습니다〉를 발간하고 이날 봉정식을 함께 진행했다.

기신재에 이어 진행된 추모집 봉정법회에서 문도회 문장 의정 스님은 "우리 제자들은 앞으로 더욱 은사스님의 얼을 기리는 데 힘을 모으고 각자 자기 본분에서 스스로의 삶을 스승의 숭고한 정신으로 승화시켜가는 것이 큰 가르침에 대한 보은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발간사를 통해 밝혔다.

봉선사=박재완 기자

고경당 법전 스님 74주기 추모

동곡문도 혜국 스님 "자신을 밝히며 살자"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주지 돈관)는 2월 19일 고경당 법전 대종사 74주기 추모 다례재를 경내 육화원에서 봉행했다.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동곡문도회 문장 혜국 스님은 "한마음 한뜻으로 어른스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떠올리면서 스스로를 밝히며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김연철 장관 "영통사 교류 협의"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 예방서 밝혀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2월 17일 서울 관문사 2층 접견실에서 김연철 통일부장관 예방을 받고, 그간 단절된 개성 영통사의 교류를 위해 통일부가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지난해 예방 때 남북관계가 진전돼 영통사에 방문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 올해는 영통사에 갈 수 있게 협의를 잘 해보겠다"고 답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인도서 한국불교 세계화 외쳐

정진원 동국대 교수, 인도 델리 · 네루대 강의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정진원 교수는 2월 13~18일 인도국립 네루대와 델리대에서 3회에 걸쳐 한국불교 특강을 실시했다. 정 교수는 훈민정음으로 쓴 월인석보와 고려시대 걸작 삼국유사를 주제로, 최고학년 3학년 및 석사과정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고대 인문학과 불교의 연계성을 설명했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 전통의식 학인모집

한국불교 태고종 부산종무원에서는
2020년 3월부터 불교전통의식을 개강합니다.
강주 민지효스님은 기초부터 각종 범패의식을
십여년간 강의해온 노하우 실력으로 알기 쉽고
잊혀지지 않는 범음범패 수업을 진행합니다.
수시로 기초적인 의식을 강의하여 절 살림에
도움이 되시도록 하며 아직 초발심인 스님을
위하여 휼륭하신 은사님을 소개하여 득도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특히 성적이 우수한 분은 홍익 범패단으로
입단하여 회원으로 활동 하실 수 있도록
모십니다.

■ **개 강** : 2020년 **3**월 **3**일 화요일
■ **장 소** :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47 청하빌딩 4층
한국불교태고종 부산교구 종무원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2시 ~ 6시까지
■ **수강료** : 매월 10만원 선금

지효스님 **010-4466-3575**
종무원 송과장 **010-9610-8505**

교육기간	강 사	교육내용
3월, 4월 (2개월)	지효스님	1교시 도량석 새벽 종송 2교시 사물, 북, 태징, 목탁, 요령 3교시 삼귀의 사홍서원 거불
	혜우역학원 원장	4교시 구궁법,명리학
5월, 6월 (2개월)	지효스님	1교시 거불, 사시불공, 조석 예불 2교시 시다림, 장례의식 3교시 구병시식, 방생의식
	혜우역학원 원장	4교시 명리학
7월, 8월 (2개월)	지효스님	1교시 천도재 의식 2교시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3교시 (나비춤) 도량게, 다게
	혜우역학원 원장	4교시 명리학
9월, 10월 (2개월)	지효스님	1교시 천도재 의식 2교시 천수바라, 화의재 바라 3교시 (나비춤) 도량게, 다게
	혜우역학원 원장	4교시 명리학
11월, 12월 (2개월)	지효스님	1교시 천도재 의식 2교시 (나비춤) 도량게, 다게 3교시 천수바라, 요잡, 화의재
	혜우역학원 원장	4교시 명리학
1월, 2월 (2개월)	지효스님	1교시 천도재 의식 2교시 (나비춤) 도량게, 다게 3교시 바라작법
	혜우역학원 원장	4교시 명리학

부산 종무원장 자관 | 강주 민지효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